

京都工場保健會 창립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남택승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京都市 소재 全日空 HOTEL에서 열린 경도공장보건회 50주년 기념식 행사에 초청을 받고 우리 산업보건협회 회장단 5명이 12월 12일 김포를 떠나서 대륙을 경유 京都 全日空 HOTEL에 오후 3시경에 도착하였다.

3시간이나 걸린 규모의 행사에 참석초청인사가 모두 1,000여명이라는 이야기와, 여장을 훈후 예정 SCHEDULE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중국 북경시의 勞動衛生職業病防治研究所의 소장을 비롯한 4명과 우리 협회 회장단을 초청하였으며, 국내에서는 노동성차관을 비롯 京都府知事, 京都府관계자, 경도노동기준국, 경도시長의 관계자, 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 이사장과 관계자, 일본自轉車振興會 회장, 대학병원 관계자, 경도시의사회장과 區의사회 관계자, 경도檢診機關連絡協議會 관계자, 韓日産業保健學術集談會 관계자, 경도 소재 각종 단체, 건강보험조합, 협력사업장, 보건회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한자리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

우선, 경도공장보건회가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해 5년전인 1985년 5월 31일 50주년을 목표로 제1차 중. 단기 운영방침을 책정하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인의 설립이념의 실천에 전원참가하여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제정의 안정, 적극적인 개혁형 업무계획의 실시, 인재육성의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의 추진에 의한 이념집단체제를 제창하고 준비를 하였으며, 그간 여러

가지 시설보완과 새로운 COMPUTER도입, C-T, M. R. I. 등을 신설하였으며 경도산업보건회로서의 면목을 일신하고 노동자들의 T. H. P. 운동을 제창, 이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과 건강측면에 접한 문제들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수그러지는바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았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경도공장보건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1940년 12월 주식회사 宮本電機제작소 사장인 宮本男也代가 경도지역의 중공업관계사업장 11사 6,5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결핵의 조기발견과 체위향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의 공동화를 목표로 “경도보건시설회”를 창립, 浦上達也 박사를 주축으로 육군 군의관 1명을 포함 15명의 의원으로 조직되어 1941년 7월에 처음으로 민간으로서 X-ray動車를 완성, 채용진검과 순회진검을 실시 5,576명중 465명의 결핵환자 (8.32%)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동년 9월에는 326여평에 144여평의 건물을 세우고 각 계각층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면서 2차대전종전 전까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1974년 4월 사회보험진검과 직업병대책을 시작하였다.

그후 1951년 5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회원 18개사 대상자 4,000명, 직원 15명으로 대, 중, 소, 학생들의 결핵진검도 하였으며 1952년 5월 재단법인 창립인가를 받고 점차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성인병대책, 중금속, 유기용제, 유해물질의 특수진검을 시작하면서 1957년 50M/M X-ray 간찰이

도입되었으며 1961년에는 34개 회원사 10,000명을 대상으로 18명의 직원이 운영하게 되었다.

1964년 神奈川노동기준국 노동위생과장이신 乾 修然 박사를 초청 건강관리부를 설치하여 더욱 그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결핵검진 수진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유소전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1966년 12월에 25주년을 맞이하기전 연건평 3,158m²을 신축하여 노동위생센터를 개원하였으며 회원사 61개사 18,000명을 대상으로 32명의 직원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는 일본자전차친흥회로부터 17,500,000엔의 보조금을 받아 직업병검진차 등을 정비하게 되었다. 동시에 인간 독크, 진폐대책, T. V, X-ray도입으로 소화기대책 등 다방면에 손을 펼치면서 1968년에는 200개 회원사 32,000명을 넘는 상태가 되었으며, 1969년에는 일본산업의학회 近地方會 사무국의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었고 1976년 일본국제협력사업단의 요청으로 한국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노동위생기관의 방문을 계기로 노동위생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이 시작되었고, 1977년 8월에 제1차 대한민국노동위생시찰단과전 등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미국을 위시하여 소련, 동구 등과도 교류를 맺게 되었다.

1979년에는 300개 회원사 50,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로부터 계속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시설개선과 최신의료장비 도입 등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며 1980년 40주년에는 342개 회원사 58,000여명의 대상과 보건회 108명의 직원으로 확장되어 그 본연의 사업이 본래도에 오르게 되었다.

1990년 12월 현재 583개 회원사 77,000여명에 대해 연간 검사인원 314,000여명의 실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역사를 살펴볼 때 1940년 11개 회사의 대표사장이 모여서 그 당시 노동자의 결핵을 주로 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조직된 “경도보건시설회”로 시작한 것이 전쟁으로 인한 설립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을 토대로 기업주 스스로가 오늘의 “경도공장보건회”를 육성발전 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이 배우고, 또한 이러한 것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반성과 앞으로의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도보건회는 또 이번 50주년을 기념하여 日, 中, 勞働衛生職業病學術交流論輯 발간과 학술회를 조직하였으며 다방면에 있어서 그 활동은 부러울 정도로 열기가 넘치고 있었다.

12월 13일 기념식장에서 축사로서는 협회의 조규상 회장의 말씀이 있었고 축사와 함께 秋史 硏究會 회장이신 崔正秀씨가 집필하신 “産業醫學振興”이라는 총중량 100kg의 액자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으며, 이어서 중국의 干 永中 소장이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3일간의 기념식에서의 意義는 앞으로 다가오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누가 이 사업을 계승할 것인가, 현재 이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50년후에 100주년 기념식에서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후배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논하는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Party 장에서 宮本창설자의 따님인 70세의 노부인께서 눈물을 흘리며 선친의 偉德을 설명하면서 현재도 그 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연간 기천만엔을 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이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우리 일행은 앞으로 우리들의 전국적인 조직인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일본의 300만 도시의 경도공장보건회의 조직과 시설을 부러워 말고 이 보건회의 가혹한 과거와 참신하고 활기찬 현재를 본받고 2000년대 우리나라 산업보건을 맡을 수 있는 인재양성과 우리 나름대로의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버리고, 직접 근로자들의 T. H. P.가 무엇인지를 재인식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각자 맡은 바를 서로가 이해하고 협동함으로써 진정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나라 산업의학을 발전시켜야 하며, 개인주의와 권위의식에서 벗어난 후배양성에 우리들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